"귀금속 제2의 부흥 위해 적극 지원"

정헌율 익산시장, 왕궁보석클러스터 현장행정… 보석 산업 지원 강화 추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왕궁에 조성된 전북디자인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기반으로 '제2의 귀금속산업 부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19일 오전 귀금속 보석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왕궁의 지식산업센터와 전북디자인센터를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북디자인센터와 익산 왕궁지식산업센터는 2017년 12월 지상3층, 연면적 8507.21㎡(디자인센터동 4968.59, 공장동 3358.62) 규모로 준공됐다.

전북디자인센터는 도내 디자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내 귀금속산업육성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왕궁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임대공장으로 총 26실중 현재 4개실에 8개 업체가 입주했고 1층 4실에는 귀금속 제조 공용장비 24종이 구축되어 있다.

왕궁 보석가공단지는 사업면적 14필지, 2만7043㎡ 규모로 13필지는 매각됐고 미 매각필지(동용리 775, 8757㎡) 활용방안마련을 위한 지구단위변경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주변 보석테마 관광지와 연계한 산업관광형 국내 최초 보석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시설을 둘러본 정 시장은 운영현황을 듣고 귀금속 공용장비실과 입주업체 사업장과 왕궁보석가공단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체들은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익산 왕궁 귀금속 제조시설이 종로 귀금속판매센터로 판로개척과 수도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주얼팰리스협의회 송재규 회장은 "주얼팰리스 입점업체로 구성된 공동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왕궁지식산업센터 2층에 현재 모집공고를 끝내고 9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공동제조시설을 갖춰 보석의 도시 옛 명성을 찾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귀금속클러스터가 익산 보석산업의 중심이 돼 대한민국 보석관광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보석산업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백제 장인정신을 계승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보석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가 농업인과 도시소비자의 특별한 만남인 권역별 농촌체험 팜파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권역별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농기센터, 29일까지 240명 대상 팜파티 실시

군산시가 농업인과 도시소비자의 특별한 만남인 권역별 농촌체험 팜파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에 따르면 농촌체험 활성화와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3회에 걸쳐 24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농촌체험 팜파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체험 팜파티는 '청암산 에코권, 대야권, 동군산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전통음식과 도자기 만들기, 목공예와 다도체험 등의 농촌체험과 팜파티를 연계하여 체험객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4개의 농촌체험농가는 특화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음식과 다과를 나누는 팜파티를 진행으로 체험농장 홍보와 함께 농산물 판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대야면에 소재한 볕뜰농원에서 '마음을 담은 농부의 오후 이야기'라는 주제로 팜파티가 진행됐으며 오는 21일에는 옥산면에 소재한 기쁨이네 다육농원에서 '청암뜰 팜파티'가 있을 예정이다. 또 오는 29일에는 임피면에 소재한 군산요에서 도자기와 차를 소재로 한 '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차차차'라는 주제로 농촌체험 팜파티도 진행된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개별농가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협업형 권역별 농촌체험 팜파티로 새로운 농촌관광에 대한 도전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의료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자리매김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 5년 연속 '1등급'

전북도 군산의료원(김영진 원장)이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군산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의료원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유·소아 급성중이염 진료 현황을 파악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고 내성률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한 평가이다.

이번 평가는 2018년 01월부터 12월까지 만15세 미만 급성중이염 환자를 대상으로 주사 및 항생제를 처방한 8,0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율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비율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율 △중이염 상병비중 △상세불명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등 총 5개 기준으로 산출됐다.

김영진 원장은 "5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최적의 항생제 사용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농기센터, 사과·배 화상병 확산, 방제 당부

전국 43곳 과수 화상병 확산,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

익산시농업기술센터(센터장 신성룡)가 사과와 배 등에 발생하는 과수 화상병이 확산되고 있어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익산시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과수 화상병 발생시기가 빠르고 발생면적도 증가해 지금까지 연도별 평균 12건 발생과 비교해 현재까지 약 366% 증가한 43건, 27ha의 과수에 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상병 발생지역이 충주와 제천, 음성 등 충북에 집중돼 있으며 전국 43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센터는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지역의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집중 예찰 및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익산지역은 지난 3월 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농가별 방제를 실시했으며 집중예찰 결과 화상병이 발생되지 않았다.

과수 화상병은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잎, 줄기, 열매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여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현재까지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발병 시 식물방역법에 의해 발생과원은 폐원 조치하며 3년간 과수와 기주식물 재배가 금지된다. 또한 수출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출이 금지돼 농가소득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화상병은 사전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과는 새순이 나오기 전, 배의 경우 꽃눈이 싹트기 전까지 등록된 약제로 반드시 살포해주고 나무에서 나무를 옮겨서 작업을 할 때는 농작업 도구를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꾸준히 화상병 예찰과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업인들의 세심한 관찰과 신고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지체 없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경찰서, 시민·경찰관 표창

박헌수 익산경찰서장은 19일 익산금마농협과 황등파출소를 방문하여 다액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해 준 금마농협 조영애 과장, 그리고 모범적인 민생치안을 실천해 준 황등파출소 정용균·오민규 경위에게 감사장과 표창장을 전달했다.

금마농협 조영애 과장은 지난 6월 12일 사채를 쓴 아들이 신체포기각서를 쓴 채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협박 전화에 예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아 송금하려는 것을 신고해 무려 3천만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줬다.

또한, 황등파출소 정용균 경위는 지난 5월 29일 관내 탄력순찰 근무중에 한 도정공장 안에 적치된 왕겨더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119는 물론 행정기관까지 동원 공조하여 이를 진화함으로써 자칫 큰 화재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

오민규 경위는 황등면 소재 도선교차로의 곡각 지점에 심어진 가로수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에 통보해 이식되도록 조치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어 이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정용균 경위는 경찰청장, 오민규 경위는 경찰서장 표창이 각각 전달됐다.

/익산=장인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군산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군산시가 관내 3500여대의 승강기 사고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예술의 전당에서 실시된 훈련 및 교육은 군산시, 군산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서부지사,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관리자 등 130여명이 참관했다.

이번 훈련은 승강기의 급정지로 인한 승객의 부상 사고 연출, 비상버튼을 이용한 구조요청, 관리주체의 신고 및 대응 방법으로, 소방서와 유지관리업체의 현장출동 및 구조 순으로 진행됐다.

훈련 시작 전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서부지사 이동희 지사장이 승강기 사고 시 관리주체의 초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박인수 안전건설국장은 훈련 강평을 통해 "승강기에 갇혔을 때는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해 구조를 요청하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